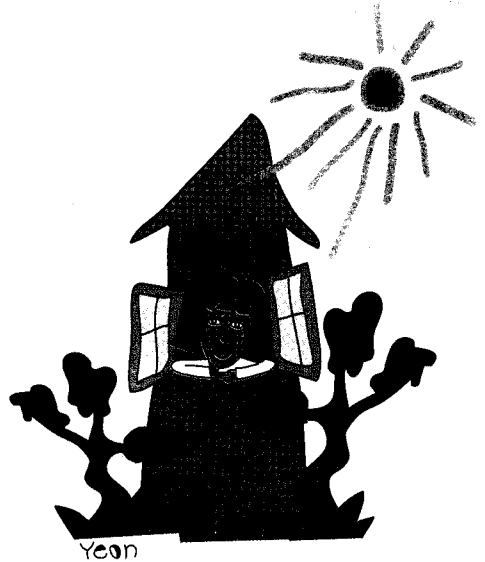




항상 감사하기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몇

일전 가까운 후배로부터 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제가 이 글귀를 보내준 친구와 이 글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란 말로 시작한 이 이 메일은 ‘항상 감사하기’란 제목이 앙증맞게 달려있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고 ...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깰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후배는 이렇게 덧붙였다.

음, 그럼 제가 견비통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열심히 일할 두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겠군요.

후배의 이 메일을 읽으며 나도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내가 가족 일로 짜증이 난다면 그건 내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이군요.

묵은 달력을 뒤로 하고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 아침엔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한다. 올 한해,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하기’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
 을... **PIPK**